

“사립유치원 보조금 비리 감사해야”

국회 법사위, 감사원 국감서

최근 논란이 된 사립유치원 보조금 비리 등에 대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사립유치원이 공공감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로 분류되고,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것으로 안다. 당연히 감사기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을) 직접 감사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정부지원금을 받는 범위 내에서는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사립학교에 직접 감사를 나간 전례는 없고, 다만 사립대학에는 감사를 나간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지금 교육청 감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지만, 교육청 감사가 한계를 가질 경우 감사원도 대책을 한번 세워야 한다”고 백 의원이 지적하자 “국민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립인 만큼 교육청이 감사 결과를 보고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할 지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유치원 비리, 업무추진비, 고용 비리를 감사원에서 전수조사를 한다지만 지금까지 감사해온 결과로 보면 공로로 메



구절초·술숲·안개 어우러져 작품이 되다

신내면 구절초테마공원을 아름답게 밝히고 있는 구절초를 카메라에 담은 작가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제13회 구절초꽃축제가 성황리에 열린 가운데 이후에도 구절초의 아름다움이 이어지면서 구절초테마공원을 찾는 이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다. 12만㎡에 달하는 구절초테마공원은 숲 아래에서 피어나는 구절초와 술숲이 어우러져 멋진 풍경을 자랑한다. 특히 섬진강의 시적인 옥정호에서 피어오르는 안개까지 어우러진 몽환적인 풍경은 전국구 수 많은 사진작가와 관광객들을 불러 모은다.

했다면 이런 국민적 분노가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원이 처절하게 반성하고 대국민 공개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원장은 “과거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

주 한다고 해도 감사원이 일한 것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감사원은 4대강 감사를 네 차례 했지만 그때마다, 정권마다 결과가 달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만약 감사원이 헌법 독립기관으로서 제 구실을

려고 했지만 국민이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을 안다”며 “앞으로 국정 현안이 되는 감사사항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감사를 시행해 감사원 감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과거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

려고 했지만 국민이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을 안다”며 “앞으로 국정 현안이 되는 감사사항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감사를 시행해 감사원 감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과거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

려고 했지만 국민이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을 안다”

최 원장은 “과거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

려고 했지만 국민이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을 안다”

최 원장은 “과거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

려고 했지만 국민이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을 안다”

최 원장은 “과거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

려고 했지만 국민이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을 안다”

최 원장은 “과거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

려고 했지만 국민이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을 안다”

최 원장은 “과거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

려고 했지만 국민이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을 안다”

최 원장은 “과거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

려고 했지만 국민이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을 안다”

최 원장은 “과거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

려고 했지만 국민이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을 안다”

최 원장은 “과거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

려고 했지만 국민이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을 안다”

최 원장은 “과거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

려고 했지만 국민이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을 안다”

최 원장은 “과거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

려고 했지만 국민이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을 안다”

최 원장은 “과거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

려고 했지만 국민이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을 안다”

최 원장은 “과거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

려고 했지만 국민이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을 안다”

최 원장은 “과거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

려고 했지만 국민이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을 안다”

최 원장은 “과거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

려고 했지만 국민이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을 안다”

최 원장은 “과거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

려고 했지만 국민이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을 안다”

최 원장은 “과거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

려고 했지만 국민이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을 안다”

최 원장은 “과거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

려고 했지만 국민이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을 안다”

전주시,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집중

환경정비 TF팀 구성·LH와 협업체계 구축

전주시가 악취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고통받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정비에 집중하고 나섰다.

시는 민선7기 핵심목표인 사람의 가치를 지켜주는 속 깊은 복지 정책 구현의 일환으로 악취와 바퀴벌레 발생 등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 온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환경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우선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불편을 겪고 있던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환경정비 TF팀을 구성하고 아파트 관리 주체인 LH와 함께 아파트

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TF팀은 이후 아파트 주거 환경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동 주민센터와 관리사무소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저장강박증 의심세대 등 바퀴벌레 퇴치와 폐기물 처리가 필요한 환경정비 필요 세대 16세대를 선정했다.

특히, 시는 환경정비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세대 동의를 얻기 위해 동 주민센터와 관리사무소, 전주시보건소 직원을 3인 1조로 편성해 환경정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경정비 동의서를 받았다.

또, 저장강박증이 의심되는 일부

세대에 대해서는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투입해 심리상담을 지원함으로써 환경정비 이후에도 주택 내 불쾌적치로 인해 주거환경이 다시 나빠지지 않도록 힘을 계속 기울인다.

나아가, 아파트 관리주체인 LH와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2개 단지에 총 10명의 청소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현재 연3회 추진 중인 법정 소독을 관리비 인상 없이 연 6회로 임찰하는 방안에도 협의하고 있다.

또한,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도 환경정비 동의를 이루어지는 즉시 정비하는 한편, 동절기 이전까지는 영구임대아파트 전체 세대에 대한 방역소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예비비도 집행할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젓값 치를 것... 동생 공범 아냐”

여론의 공분을 산 ‘강서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가 22일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젓값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 드러났다. 김씨는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웅얼거렸다. 김씨는 범행을 왜 저질렀는지, 왜 그렇게 잔혹하게 했는지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동생이 공범이란 의혹이 있다”는 말에 “(공범이) 아니다”라고 중얼거렸다.

피해자 가족에게 한마디 해달란 요청엔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젓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스

143층 익스트림타워 복합개발에 탄력 붙나?

자광, 부지 자금 모두 납부·소유권 취득 완료
도시기본계획·용도변경·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전북도·전주시 등에 행정 절차 협조 요청

전북 전주 대한방직 부지에 143층 초고층 타워 개발에 나선 (주)자광이 부지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소유권 취득을 완료해 143층 익스트림타워 복합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자광은 22일 전주 시청 브리핑룸에서 143층 익스트림타워 복합개발사업의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만큼 전북도와 전주시 등에 적극적으로 행정 절차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전수 자광 대표는 이날 “오는 11월 중으로 전북도에 국토교통부 고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등 관련법에 따라 사업부지 내에 존치되고 있는 전북도 공유지에 대해 사전협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전주시에는 지구단위계획입안제안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중반기에 타워복합시설을 동시에 공사 착공하고, 2023년 중반기에 동시 준공할 수 있도록 제반 인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 대표는 일부 시민들이 우려하는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 이익금에 대해서 전주시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개발이익환수의 구체적인 절차, 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 전주시가 원하는 방향에 맞도록 납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론화위원회에서 기부채납이나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시민과 전문가들의 요구가 사업을 못할 정도로 과도한 것이 아니라면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자광은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시작으로 용도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의 행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며 또, 공장 부지 한가운데 있

는 전북도 소유 땅 매입 문제에 대해선 조만간 협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자광에서 정식으로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서를 제출하면 시민과 전문가 등 여러계층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공론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다”며 “공론위 구성과 관련하여는 전주시의회와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광은 그동안 지역 언론과 지역 각계 직능단체 초청 설명회 등을 통해 세계 7번째 높이의 143층 익스트림타워 복합개발사업의 필요성과 양질의 일자리창출이 가능하고, 둘째, 전북도가 강력 추진하고 있는 전주혁신도시를 제3의 세계적 금융허브도시로 성장하고 정착시키는 추진체 역할을 담당하고, 셋째, 169개구 6만여 명이 참가하는 ‘2023 새만금 세계 챔피언국제행사’의 성공 개최로 전북이 세계적인 관광명소 도시로 비상하고, 넷째, 매년 1천만명 관광객이 찾아오는 한옥마을과 연계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일체형 관광순환 벨트를 형성할 수 있다.

한편, 자광의 전수 대표는 전북기업으로서 역할을 인정받기 위해 새만금 개발에도 적극 참여할 의향을 내비치며 “새만금 개발을 통해 금융허브도시로 성장하고 새만금 국제공항건설 추진 등 급격한 대규모 건설사업에도 참여해 주도적으로 시너지효과를 배가시키겠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군산해경 “조업철 해양안전사고 주의해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종욱)는 고군산군도 일원을 중심으로 꽃게, 멸치, 전어 조업철을 맞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에 따른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오는 오전 6시께 군산시 옥도면 말도 서쪽 약 13km 해상에서 9.7급 어선에서 일하는 이모(56)씨가 그물에 달린 무게 추에 맞아 얼굴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어 경비를 이용해 후송했다”고 밝혔다.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선박,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는 모두 5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2명에 비교했을 때 23% 증가했다.

이중 절반(53%)에 해당하는 28명은

6~8월까지 발생한 것으로 휴가철 고군산군도를 찾는 관광객이 부상을 입거나 질병으로 인한 응급환자가 많았다.

하지만 지난달부터는 발생한 12명의 응급환자는 꽃게, 멸치, 전어, 주꾸미 조업 활동 증가로 어선에서 발생했다.

박종욱 군산해양경찰서장은 “해상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가장 빠르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고 있다”며 “무리한 조업을 삼가고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며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초동조치와 함께 구조기관에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청소년통합지원체계 하반기 운영위원회 개최

전주시가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청소년유관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는 22일 현대해상 5층 회의실에서 전주시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하반기 운영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CYS-Net 중점사업의 추진 결과 보고에 이어, △전주시청소년특별지원사업 대상 청소년 선정 심의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등의 안건이 다뤄졌다. /송효철 기자

덕진구, 저소득 영아 양육기정 방한·육아용품 전달

전주시 덕진구는 22일 장애·희귀질환 아동 가정 및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 8세대에 방한육아용품으로 ‘행복따숨 꾸러미’를 전달, 아이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행복 따숨 꾸러미는 지난 7월 한 지역주민이 의동말의 두 돌을 기념하여 또래의 저소득 아동과 사랑을 나누고자 덕진구에 지정기탁한 후원금으로 마련했다.

지원 대상 중 양육의 어려움이 더 깊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뇌병변장애아동과 백혈병의 희귀질환아동이 있는 두 가정에는 양면수 덕진구청장이 직접 방문하여 꾸러미를 전달하고 양육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듣고 위로·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효철 기자



“평안을 주는 예수병원”

예수병원의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예수병원은 120년 동안 생명을 지켜온 사랑으로
희망의 내일을 열어 갑니다.
환자경험 중심, 수준 높은 진료환경으로 행복을 키우는 예수병원
예수병원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게 하옵소서,
1897년, 예수병원 설립자 마티 잉골드 일기

축! 전주매일 창간







예수병원
Presbyterian Medical Center

54987 전북 전주 완산구 서원로 365 대표전화_063.230.8114
고객지원센터_063.230.8181, 8196 응급의료센터_063.230.8282